

디지털 하위문화가 청소년기 정치 사회화와 20 대 남성 극우화에 미치는 영향: 디시인사이드와 젠더 갈등을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

1. 서론: '이대남' 현상의 부상과 디지털 기원

1.1 연구의 배경 및 문제 제기: 정치적 지형의 전례 없는 균열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에 이르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논쟁적인 현상은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으로 불리는 인구통계학적 집단의 급격한 정치적 보수화와 결집이다. 전통적인 정치학적 통념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진보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띠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20대 남성은 이러한 '연령 효과(Age Effect)'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60대 이상 노년층과 유사하거나, 특정 이슈에 있어서는 더욱 강경한 보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¹

2021년 4.7 재보궐 선거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러한 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남성의 약 58.7%가 보수 정당 후보를 지지한 반면, 동년배 여성의 58%는 진보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을 보였다.³ 이는 같은 세대 내에서 성별에 따른 정치적 지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현대적 젠더 격차(Modern Gender Gap)'의 등장을 의미하며, 과거 지역주의나 계급 갈등이 주도했던 한국 정치의 균열 축이 '젠더'와 '세대'가 결합된 형태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³

이 연구는 이러한 20대 남성의 정치적 태도 변화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권에 대한 심판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화적 현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제(Mechanism)로서 '디지털 하위문화', 구체적으로는 '디시인사이드(DC Inside)'로 대표되는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에

주목한다. 학교나 가족과 같은 전통적 사회화 기관의 영향력이 약화된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기에 경험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배타적 문화와 혐오의 문법은 어떻게 정치적 효능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능력주의'와 '반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구체화되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보고서는 인터넷 하위문화가 청소년기 정치 사회화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것이 현재 20 대 남성의 극우화 경향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탐구한다.

1. **디지털 놀이 문화의 정치화:** 유머와 밈(Meme)으로 소비되던 인터넷 하위문화가 어떻게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었는가? ⁵
2. **공정성 담론의 재구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습된 '공정'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여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대감(반페미니즘, 능력주의)으로 표출되는가? ⁷
3. **젠더 전쟁과 피해자 서사:** 메갈리아의 미러링 전략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Backlash)과 그로 인해 형성된 '잠재적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의 집단 정체성은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⁹
4. **정치적 부족주의와 극우화:** 온라인의 부족주의적(Tribalism) 특성이 현실 정치에서의 '부정적 당파성(Negative Partisanship)'과 결합하여 극우적 성향을 띠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⁴

분석의 대상은 2000년대 초반 디시인사이드의 태동기부터 일베저장소의 분화, 2015년 이후 격화된 젠더 갈등, 그리고 2020년대 '이대남'의 정치 세력화에 이르는 시계열적 과정을 포괄한다.

2. 디지털 혐오의 인큐베이터: 디시인사이드와 일베의 계보학적 분석

2.1 디시인사이드: 한국 인터넷 하위문화의 '성지'이자 '배설구'

1999년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로 출발한 디시인사이드는 2024년 기준 일일 방문자 300만 명, 일일 게시물 300만 개에 달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이자 인터넷 하위문화의

발원지이다.¹⁰ 디시인사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과 '비로그인' 시스템이다.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글을 쓰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구조는 이용자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되는 '탈억제 효과(Disinhibition Effect)'를 극대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다.¹¹

2.1.1 갤러리 시스템과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

디시인사이드는 주제별로 세분화된 '갤러리'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초기에는 취미 중심이었으나, 점차 '국내야구 갤러리(야갤)', '주식 갤러리(주갤)' 등 특정 갤러리가 정치·사회 이슈를 주도하는 거대 담론장으로 변모했다. 선스타인(Sunstein)의 집단 극단화 이론에 따르면,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토론할 경우 그들의 의견은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강화된다.¹² 디시인사이드의 추천 시스템인 '개념글'은 이러한 극단화를 가속화하는 알고리즘적 동인이다.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특정 대상을 조롱하는 게시물일수록 많은 추천을 받아 상단에 노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는(개념글에 가기 위해서는) 더 자극적이고 혐오 섞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행동 강화 기제로 작동했다.

2.2 일베저장소의 분화와 '산업화' 논리의 탄생

2010 년경 디시인사이드의 일부 과격한 유저층이 분리되어 형성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는 한국형 온라인 극우 문화의 시초로 평가받는다. 일베는 디시인사이드의 하위문화를 계승하되, 이를 명확한 정치적 목적성을 띤 도구로 발전시켰다.¹³

| 특징 | 디시인사이드 (초기) | 일베저장소 (전성기) | 디시인사이드 (현재/야갤 등) |
|-------|----------------|-------------------|--------------------|
| 주된 정서 | 엽기, 유머, 비주류 문화 | 혐오, 정치적 극단주의, 우월감 | 냉소, 능력주의, 반페미니즘 |
| 정치 성향 | 혼재됨 (무정부주의적) | 극우, 반공, 반호남 | 대안 우파적 보수, 반민주당 |
| 활동 방식 | 합성 필수요소(짤방) 제작 | 팩트 검증(주장), 신상 털기 | 좌표 찍기, 화력 지원, 밈 유포 |

일베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혐오 발언과 사이버 테러 행위를 '산업화'라고 명명했다.⁶ 이는 과거

산업화 세대(박정희 정권 등)의 성취를 긍정하고, 민주화 세대(진보 진영)가 은폐한 '진실'을 알린다는 왜곡된 사명감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특히 노무현)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합성 사진과 음악을 제작하여 유포했는데, 이는 정치적 권위를 해체하는 것을 넘어 폭력과 죽음 자체를 '놀이'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¹⁵

2.3 디시인사이드로의 회귀와 혐오의 일반화

2010년대 중반 이후 일베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폐쇄적인 성향으로 인해 쇠락하자, 그 이용자와 정서는 다시 디시인사이드(특히 야구 갤러리)와 '에펨코리아' 등 파생 커뮤니티로 흡수되었다.¹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일베라는 '브랜드'는 폐기되었으나, 그들이 생산한 혐오의 논리(여성 혐오, 지역 비하, 약자 조롱)는 '보통의 20대 남성 문화'로 세탁되어 더욱 넓은 범위로 확산된 것이다. 이제 극우적 담론은 특정 사이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튜브 댓글, 페이스북 페이지, 대학 커뮤니티(에브리타임) 등 청소년과 청년이 이용하는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만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¹⁷

3. 청소년기 정치 사회화의 메커니즘: 놀이가 된 혐오

3.1 혐오의 놀이화(Gamification of Hate)와 트롤링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는 단순한 정보 습득의 공간이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래 문화를 공유하는 제 1의 사회화 기관이다. 문제는 이 공간에서 정치와 사회 이슈가 소비되는 방식이 '게임(Gamification)'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¹⁸

- **트롤링(Trolling)으로서의 정치 참여:** 청소년들은 논리적인 토론보다는 상대방(주로 진보 진영, 페미니스트, 소위 '선비'라 불리는 도덕적 엄숙주의자)을 화나게 하고, 논쟁을 유발하며, 금기를 깨뜨리는 행위 자체에서 재미와 효능감을 느낀다. 이는 트롤링이 일종의 정치적 참여 형태로 변질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 **승리 지상주의:** 게임에서 승패가 중요하듯, 키보드 배틀에서도 논리의 정합성보다는 상대를 제압하고 조롱하여 '정신승리'를 거두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타협과 공존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고, 정치를 적과 아군의 전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3.2 폭력에 대한 둔감화(Desensitization)와 정서적 마비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커뮤니티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적, 혐오적 콘텐츠 노출은 청소년들의 도덕적 감수성을 무디게 만드는 '정서적 둔감화'를 초래한다.²³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폭력적 미디어 노출은 청소년기의 내재화된 문제(우울, 불안)를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일시적 해소), 장기적으로는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게 만든다.²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희생자들을 조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이 범람했던 현상은 이러한 공감 능력의 집단적 상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청소년들은 "누가 거기 가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누칼협)"라는 밈을 통해 구조적 비극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조롱하는 냉소적 태도를 학습했다.

3.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패와 한계

현재 한국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이러한 하위문화의 역기능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교육은 정보 검색 능력이나 코딩 기술과 같은 기능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거나, "악플을 달지 말자"는 식의 당위적이고 도덕 교과서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²⁶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은 이미 기성세대 교사나 부모보다 온라인 생태계의 문법을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네티켓'을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으로 치부한다. 특히 혐오 표현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젠더 갈등이나 능력주의와 같은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해독(Critical Decoding)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²⁷

4. 공정성 담론의 왜곡과 '이대남' 이데올로기의 구성

4.1 맥락이 소거된 공정(Context-stripped Fairness)과 능력주의

'이대남'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공정'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공정은 역사적, 사회적 불평등을 고려한 '형평성(Equity)'이 아니라, 시험 성적이나 정량적 수치로 증명되는 '기계적 평등(Equality)'에 국한된다.⁸ 천관울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 대 남성은 과정을 불문하고 결과만 능력(시험 점수)에 따라 정확히 배분되는 것을 정의라고 믿는다.

- **할당제에 대한 극단적 거부감:**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 할당제, 지역 인재 가산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정 조치는 공정을 해치는 '역차별'이자 '반칙'으로 간주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인국공 사태)에서 보여준 20 대 남성들의 분노는 "노력하지 않은 자가 정규직이 되는 것"에 대한 능력주의적 반감의 발로였다.

- **능력주의의 뒷:**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옥죄는 결과로 돌아오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이 '팩트'이자 '세상의 이치'로 통용된다. 이는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능력주의 사다리 아래에 있는 집단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장된다.³⁰

4.2 경제적 불안과 생존주의적 태도

20 대 남성의 보수화는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주의'적 반응이기도 하다.¹³ 1997 년 IMF 외환위기 이후 출생한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수 있다는 '하향 이동'의 공포를 안고 성장했다.

| 구분 | 기성세대 (586 등) | 20 대 남성 (이대남) | 갈등 요인 |
|--------|-----------------|------------------|----------------|
| 성장 배경 | 고도 성장기, 민주화 투쟁 | 저성장, 무한 경쟁, 각자도생 | 세대 간 자원 배분 갈등 |
| 젠더 인식 | 가부장제 수혜자, 부채 의식 | 역차별 피해자, 경쟁자 |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각차 |
| 정치 효능감 | 집단 행동을 통한 변혁 경험 | 온라인 여론전을 통한 효능감 | 정치 참여 방식의 차이 |

취업난과 자산 격차 심화로 인해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20 대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나의 몫을 빼앗아가는 위협적인 경쟁자'로 인식한다. 연구 결과, 취업이나 결혼 기회의 상실 위협(Downward Mobility)을 강하게 느끼는 남성일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 성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³¹

4.3 피해자 서사의 구축: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

20 대 남성 커뮤니티를 관통하는 핵심 정서는 '억울함'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부장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면서, 병역 의무라는 독박을 쓰고, 동시에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³³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대 남성의 70~80%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하는 현실은 이러한 피해자 서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보여준다.¹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그 원인을 '페미니즘'과 '현 정부(당시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집단적 서사를 완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5. 젠더 전쟁의 격화: 미러링, 백래시, 그리고 정치적 동원

5.1 메갈리아의 등장과 미러링의 역설

2015 년 메르스 갤러리에서 파생된 '메갈리아'의 등장은 한국 젠더 갈등의 분기점이 되었다. 메갈리아는 디시인사이드와 일베 등 남성 커뮤니티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여성 혐오(예: '김치녀', '삼일한')를 그대로 남성에게 되돌려주는 '미러링(Mirroring)' 전략을 채택했다.⁹

- **미러링의 의도:**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던 언어폭력의 구조를 그대로 비추어줌으로써 그 부당함과 혐오의 실체를 깨닫게 하려는 전략이었다.
- **남성들의 수용:** 그러나 당시 청소년기 혹은 20 대 초반이었던 남성들에게 미러링은 성찰의 계기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이유 없는 공격이자 혐오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나는 여자를 때린 적도, 차별한 적도 없는데 왜 한남충이라고 욕을 먹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메갈리아를 '일베와 동급인 혐오 집단'으로 규정했다.⁹

5.2 백래시(Backlash)의 조직화: GS25 손가락 논란

온라인상의 젠더 갈등이 오프라인으로 폭발한 대표적인 사건은 2021 년 'GS25 포스터 남성 혐오 논란'이다. 디시인사이드와 에펴코리아 등 남성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포스터에 등장한 집게 손가락 모양이 메갈리아의 로고(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를 비하하는 의미)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²⁷ 이 사건은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과 사과 요구, 담당자 징계 압박이라는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다.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사과하고 홍보물을 수정하는 과정을 보며, 20 대 남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결집력이 현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학습했다. 이는 "페미니즘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고, 반페미니즘 활동을 일종의 '정의 구현'으로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5.3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혐오의 극단적 진화

반페미니즘 정서가 극단화되면서 나타난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이다.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하여 지인이나 불특정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¹³ 이는 단순한 성적 일탈이 아니라,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능욕'과 '놀이'의 대상으로 격하시키는 온라인 하위문화의 혐오 정서가 기술과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다. 2010년대 일베의 '합성 필수요소' 문화가 정치인을 조롱하는 데 쓰였다면, 2020년대의 딥페이크는 일반 여성을 공격하고 사회적으로 말살하는 무기로 진화한 것이다. 이는 젠더 갈등이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폭력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6. 정치적 부족주의와 극우화의 상관관계 분석

6.1 부정적 당파성(Negative Partisanship)과 반문(反文) 연대

20대 남성의 투표 행태를 분석해보면, 이들이 보수 정당의 전통적 가치(안보, 시장 자유 등)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투표는 '부정적 당파성'에 기반한다. 즉,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페미니즘 세력이 싫어서 반대편에 투표하는 것이다.³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된 성평등 정책과 친페미니즘적 행보는 20대 남성들에게 "정부가 남성을 버렸다"는 시그널로 읽혔다. 이러한 배신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문재인, 반민주당 정서를 결집시켰고, 이것이 2021년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의 '몰표'로 이어졌다.

6.2 대안 우파(Alt-right)적 담론의 수용과 변용

한국의 20대 남성 극우화는 서구의 '대안 우파' 현상과 유사하면서도 독자적인 궤적을 그린다.¹³

- **PC 주의(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 서구의 대안 우파가 이민자와 페미니즘을 공격하듯, 한국의 20대 남성들은 페미니즘, 다문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덕적 독재'이자 'PC 주의'로 규정하고 거부한다.³⁹
- **자유지상주의와 국가주의의 기묘한 동거:**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적 태도를 보이지만, 군 복무 보상이나 여성 우대 폐지와 같은 이슈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를 요구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일관된 이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가깝다.

6.3 정치권의 편승과 혐오의 제도화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온라인 하위문화의 정서를 포착하여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세대 포위론'이나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20 대 남성 커뮤니티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포퓰리즘적 전략이었다.² 정치권이 젠더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기보다, 이를 선거 승리를 위한 동원 기제로 활용함으로써 혐오와 차별적 인식은 제도권 정치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가 대통령 공약이 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청소년과 20 대 남성들은 자신들의 반페미니즘적 신념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는 온라인의 극단적 주장이 오프라인의 주류 정치 담론으로 격상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7. 종합 분석 및 제언: 혐오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7.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디시인사이드 등 남성 중심 인터넷 하위문화는 단순한 취미 공유의 장을 넘어 한국 사회의 청소년기 정치 사회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제로 부상했다.

- 하위문화의 정치 사회화 기능:** 익명성과 알고리즘에 기반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청소년들에게 혐오를 놀이로, 차별을 공정으로, 트롤링을 정치 참여로 인식하게 만드는 왜곡된 사회화 과정을 제공했다.
- 이대남 이데올로기의 형성:** 경제적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은 '피해자 서사'를 구축했고, 이는 메갈리아 미러링에 대한 반발을 통해 강력한 '반페미니즘' 연대로 결집되었다.
- 극우화의 가속화:** 기성 보수 정치 세력은 이러한 20 대 남성의 분노를 '공정'과 '상식'의 이름으로 포섭하여 정치적 동력으로 삼았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우경화와 젠더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켰다.

7.2 정책적 제언 및 대응 방안

7.2.1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비판적 디지털 시민성

기존의 예방 중심적 인터넷 윤리 교육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미디어의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꺾어 볼 수 있는 '비판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²⁸

- **알고리즘 이해 교육:**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극단적 콘텐츠를 유도하는지 기술적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
- **혐오의 사회학:** 혐오 표현이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권력 관계와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밈과 용어의 정치적 맥락을 분석하는 토론 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7.2.2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가 혐오의 배양소가 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더 강력한 자율 규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⁴⁰

-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 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명확한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혐오 조장 게시물이나 갤러리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알고리즘 투명성:** 혐오를 조장하여 트래픽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설계를 지양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7.2.3 사회 구조적 해법 모색

20 대 남성의 불만 기저에 깔린 사회경제적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 **청년 삶의 질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지원 등 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각자도생'의 생존주의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
- **젠더 갈등 해소 기구:** 정치적 득실을 떠나 젠더 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 서로를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불만과 요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합리적인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7.3 맺음말

지금의 20 대 남성 현상은 한국 사회가 압축 성장과 디지털 혁명,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혼란을 겪으며 쌓아온 모순들이 '젠더'라는 약한 고리를 통해 터져 나온 것이다. 온라인 하위문화를 통해 배양된 혐오와 배제의 정치는 이미 현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을 단순히 '철없는 괴물'로 타자화하거나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의 실체를 직시하되, 그 분노가 혐오라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1. 20 대 남성의 보수화 논의, 그 역사와 함의 - 정치와 공론 - KISS,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924660>
2. 20 대 남성의 보수화 - red - 디지털인문학연구소,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dh.aks.ac.kr/~red/wiki/index.php/20%EB%8C%80_%EB%82%A8%EC%84%B1%EC%9D%98_%EB%B3%B4%EC%88%98%ED%99%94
3. [EAI 대선 패널 조사] ⑤ 청년 젠더 갈등: 이념 갈등 뛰어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균열선 될까?,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eai.or.kr/press/press_01_view.php?no=11314
4. 제 20 대 대통령 선거와 20 대 유권자의 젠더 균열 - EAI 동아시아연구원,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eai.or.kr/press/press_01_view.php?no=10706
5. Meme Expedition: What is the Progenitor of Korean Internet Memes? • BE(ATTITUDE),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magazine.beattitude.kr/en/essay/kimkyoungsoo2/>
6. An Analysis of Online Hatred in South Korea By Jang Won Kim Senior Honors Thesis Communication Studies University,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cdr.lib.unc.edu/downloads/1r66j5187?locale=en>
7. 20 대의 안티페미니즘 인식의 복합적 요인에 대한 젠더 비교 연구*,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kwdi.re.kr/inc/download.do?ut=A&upldx=133265&no=1>
8. 20 대 남자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전자책서비스,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ebook.library.kr/detail?id=4808994973531&contentType=EB>
9. 메갈과 남성혐오? 미러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편) | 온라인다양성훈련 - YouTube,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iVUkpznD4Hk>
10. Inside 'DC Inside': the most chaotic, controversial, yet influential corner of Korea's web,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416369>
11.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없는 세상을 꿈꾸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gwff.kr/storage/old_board_file/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7/202111/6184e340e6dd61130766.pdf
12. The hatred of all against all? Evidence from online community platforms in South Korea, 1 월 24, 2026 에 액세스,

-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300530>
13. Hate in the Gender War in South Korea - Synerg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n Studies,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utsynergyjournal.org/2024/12/24/hate-in-the-gender-war-in-south-korea/>
 14. Hardcore Subcultures for Law-Abiding Citizens and Online Nationalism: Case Study on the Korean Internet Community ILBE Jeojangso,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ink.library.smu.edu.sg/cgi/viewcontent.cgi?article=5759&context=lkcsb_research
 15. The hatred of all against all? Evidence from online community platforms in South Korea - Research journals - PLOS,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file?id=10.1371/journal.pone.0300530&type=printable>
 16. Inside 'DC Inside': the most chaotic, controversial, yet influential corner of Korea's web,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reddit.com/r/korea/comments/1imm04p/inside_dc_inside_the_most_chaotic_controversial/
 17. 'Men don't know why they became unhappy': the toxic gender war dividing South Korea,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5/sep/20/inside-saturday-south-korea-gender-war>
 18. GAMIFICATION AND ONLINE HATE SPEECH - Migration and Home Affairs,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home-affairs.ec.europa.eu/system/files/2022-12/Quarterly%20research%20review-gamification%20and%20online%20hate%20speech.pdf>
 19. What We Can Learn from Gamification in Asia,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politicseastasia.com/studying/gamification-in-asia/>
 20. INTERNET TROLLS AS A POLITICAL MECHANISM AS PERCEIVED BY SELECTED SOCIAL MEDIA USERS IN THEIR CHOICE OF CANDIDATE - MSEUF,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mseuf.edu.ph/research/read/2162>
 21. Online Trolls: Unaffectionate Psychopaths or Just Lonely Outcasts and Angry Partisans? - Cogitatio Press,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cogitatiopress.com/politicsandgovernance/article/download/5790/3011>
 22. Do Online Trolling Strategies Differ in Political and Interest Forums: Early Results - PMC,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7573649/>

23. Emotional Desensitization to Violence Contributes to Adolescents' Violent Behavior - PMC,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4539292/>
24.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cyber violence on the influence of exposure to violent online media on cyber offending in Korean adolescents - ResearchGate,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50732304_The_moderating_effect_of_the_perception_of_cyber_violence_on_the_influence_of_exposure_to_violent_online_media_on_cyber_offending_in_Korean_adolescents
25. The Impact of COVID-19 and Exposure to Violent Media Content on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National Population-Based Study,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jmir.org/2024/1/e45563/>
26. The status of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ggestions for further improvement 1 - INKSLIB,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inkslib.nl.go.kr/IN/contents/150401010000.do?schM=view&id=43998&schBcid=inkslibKoreanTrends>
27. 사이버 공간에서 차별·혐오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unesco.or.kr/wp-content/uploads/2024/06/2022%EB%85%84-%EC%9C%A0%EB%84%A4%EC%8A%A4%EC%BD%94-%EC%9D%B4%EC%8A%88-%EB%B8%8C%EB%A6%AC%ED%94%84-%EC%A0%9C1%ED%98%B8-%EC%82%AC%EC%9D%B4%EB%B2%84-%EA%B3%B5%EA%B0%84%EC%97%90%EC%84%9C-%EC%B0%A8%EB%B3%84%C2%B7%ED%98%90%EC%98%A4-%EB%8C%80%EC%9D%91%EA%B3%BC-%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A%B5%90%EC%9C%A1.pdf>
28. Educating Language in the Digital Age: Critical Thinking and Media Literacy for the Prevention of Hate Speech - Frontiers,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education/articles/10.3389/feduc.2026.1773419/full>
29. Anti-Gender Politics, Economic Insecurity, and Right-Wing Populism: The Rise of Modern Sexism among Young Men in South Korea - Oxford Academic,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academic.oup.com/sp/article/32/3/584/7826751>
30. 20 대 남성의 성평등인식: 지배적 남성성 규범과 능력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DBpia,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125249>
31. Men's decline and rising support for hostile sexism: A survey experiment from South Korea,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pubmed.ncbi.nlm.nih.gov/40087002/>

32. My Honest Review of 'The Defining Decade' from a twentysomething | by Shana Chia,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medium.com/@shana.chia/my-honest-review-of-the-defining-decade-from-a-twentysomething-7e1870c0de75>
33. Feminism is the New F-Word – Populism & Patriarchy Among Young South Korean Men,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harvardpolitics.com/feminism-is-the-new-f-word-populism-patriarchy-among-young-south-korean-men/>
34. 여성 혐오에 대한 미러링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KISO 저널,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journal.kiso.or.kr/?p=7170>
35. Finger pinching conspiracy theory - Wikipedia,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en.wikipedia.org/wiki/Finger_pinching_conspiracy_theory
36. Digital Sex Crime, Online Misogyny, and Digital Feminism in South Korea,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montrealetics.ai/digital-sex-crime-online-misogyny-and-digital-feminism-in-south-korea/>
37. 20 대 남성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낫다" 84%→63%...불만·실망감 표출 - 중앙일보,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4106>
38. Fighting Hate and Hate Speech: Raising Anti-Hate Awareness through Critical Analysis of Popular Cultural Texts on an Undergraduate Course - MDPI,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mdpi.com/2075-4698/13/11/240>
39. Truth-Telling and Trolls: Trolling, Political Rhetoric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d the Objectivity Norm - aspeers,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www.aspeers.com/sites/default/files/pdf/Lieback.pdf>
40. SEM analysis of agreement with regulating online hate speech: influences of victimization, social harm assessment, and regulatory effectiveness assessment - PMC - NIH, 1 월 24, 2026 에 액세스,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0758475/>